

1980-1990년대 안정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올커뮤니케이션의 창립 배경과 역할을 중심으로

Ahn Jeongeon's Identity Design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Focusing on the Background and Role in Founding All Communications

주저자 First Author: 강현주 Kang Hyeonjoo
인하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Design Convergence, Inha University

공동저자 Co-author: 손채영 Sohn Mirabel Chaeyoung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Ph.D. Program, Konkuk University

공동저자 Co-author: 강승연 Kang Sungyoun
쿤스트엔디 대표 CEO of kunst&d

교신 저자 Corresponding Author: 김성천 Kim Sungchun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 대표 CEO of CDR Associates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안정언의 생애와 디자인 활동

- 2.1. 안정언의 생애
- 2.2. 안정언의 디자인 활동

3.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

- 3.1. 올커뮤니케이션의 창립 배경 및 안정언의 역할
- 3.2.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의 주요 CI 사례
- 3.3. 안정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특징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디자인사학회 디자인기술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물로 (주)시디알어소시에이츠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112-11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112113

요약

안정언(1942년생)은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성기에 활동한 디자인 교육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1981년, 제일은행 CI 프로젝트를 계기로 올커뮤니케이션을 창립했으며, 교수-디자이너 연구팀으로 시작된 이 조직은 1994년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 연구는 안정언이 올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살펴보고, 역할과 활동을 한국디자인사의 맥락에서 고찰했다. 안정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애와 작품을 조사하고, 1981년부터 1994년까지 그가 올커뮤니케이션 대표로서 CI 개발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당시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 업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단행본, 신문 및 잡지 기사, 회사 소개 책자 등을 검토했다.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은 교수-디자이너 연구팀에서 시작된 국내 아이덴티티 디자인 비즈니스가 CI 전문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 포용적 리더십, 그리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다수의 C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뚜렷한 콘셉트를 섬세한 비주얼 이미지와 창의적으로 결합해 주목받았다. 안정언은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던 시기에 국내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고찰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구체적이고 풍부한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핵심어

안정언, 올커뮤니케이션, 아이덴티티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한국디자인사

Abstract

Ahn Jeongeon (born 1942) is a design educator and graphic designer who was active during the heyday of Korean identity design. He founded All Communications in 1981 after working on a corporate identity (CI) project for Korea First Bank. Initially established as a professor-designer research team, All Communications transitioned into a corporation in 1994. This study explores Ahn Jeongeon's background and motivation for founding All Communications and examines his role and activities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Korean design history. The research draws on an interview with Ahn Jeong-eon to investigate his life, activities, and work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81 to 1994, during which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All Communications and played a key role in CI development. Additionally, relevant books, newspaper and magazine articles, and company brochures were reviewed to provide insight into the overall landscape of the Korean identity design business at the time. Ahn Jeongeon and All Communications exemplify the evolution of an identity design business from a professor-designer research team into a specialized CI firm. Ahn Jeongeon successfully led numerous CI projects through his strong design sense, inclusive leadership, and close collaboration. His identity designs received attention for their creative integration of clear concepts and highly sophisticated visuals. Ahn Jeongeon founded and led All Communications during a period of growing social demand for identity design, coinciding with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h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quality and diversity of identity design in the country. An examination of his life and work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the history of Korean graphic design, offering a deeper and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ts development.

Keywords

Ahn Jeongeon, All Communications, identity design, graphic design, Korean design history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안정연(1942년생)은 한국 그래픽 디자인이 현대적인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발전하던 시기에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디자인 교육자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다. 1981년에 창립해 안정연이 대표직을 역임한 CI 디자인 전문회사인 울커뮤니케이션은 조영제가 이끈 CDR(1974)과 함께 초창기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를 선도했다. 1980년대에 기업 및 사회 각 부문에서 CI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자인포커스(1983), 디자인파크(1984), 인피니트(1988), 심팩트(1988) 등 디자인 전문회사가 설립되고, 1987년에 미국 랜도 어소시에이츠(Landor Associates)의 한국 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가 크게 활성화됐다. 이 연구는 안정연의 생애와 디자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며, 그가 울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하게 된 동기와 배경, 그리고 창립 과정에서의 그의 역할을 분석했다. 또한 안정연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활동의 특징과 그 디자인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안정연은 1960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정년 퇴임하기까지 그래픽 디자인 작업에 헌신하며 독창적이고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울커뮤니케이션에서의 안정연의 역할과 작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울커뮤니케이션에 참여했는데, 그가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초창기 교수-디자이너 연구팀 시절(1981-1993)이었다. 연구는 한국디자인사학회 디자인구술사위원회에서 인터뷰를 기획하면서 시작했다.¹ 두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생애와 활동, 작품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녹취했다. 이 과정에서 안정연과 울커뮤니케이션 관련 자료들을 조사했으며 이후 단행본, 신문 및 잡지 기사, 회사 소개 책자 등을 검토해 당시 한국 그래픽 디자인계 상황과 아이덴티티 디자인업계 흐름을 파악했다.

2. 안정연의 생애와 디자인 활동

2.1. 안정연의 생애

안정연은 1942년에 일본 야마구치현 오노다(小野田)에서 출생했다. 1945년 해방 후 아버지 고향인 충청남도 공주로 이사했다가 1947년에 외가 친척들이 사는 부산으로 이사했다. 1948년에 부산 동신국민학교에 입학했고, 3학년 담임 교사였던 이오덕²의 영향으로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에 흥미를 갖게 됐다. 1954년에 대신중학교에 입학해 미술반

1 1차 인터뷰는 2020년 10월 24일(토) 14:30-17:30, 2차 인터뷰는 2020년 11월 14일(토) 13:00-17:00에 용인시 수지의 안정연 자택에서 진행했다.

2 이오덕(1925-2003)은 교육자이자 아동문학가다.

114115

활동을 했고, 미술 교사 이석우³의 영향으로 미술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1957년에 입학한 경남상업고등학교에서도 미술반 활동을 이어갔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배우면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미술반 선배 김효⁴의 조언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응시했다. 입학(1960) 후 권순형, 민철홍, 김정자 등 미국 유학을 다녀온 교수들의 강의를 수강하며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했다.⁵ 복학 후 1967년에 일본의 계간 잡지인 《공예뉴스(工芸ニュース)》에서 소니(SONY)사의 트랜지스터 방식 오디오 개발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디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대학 재학 중 금성판매주식회사 선전과에 입사(1968.7.-1969.6.)해 매장 디스플레이 업무를 담당했다. 졸업 후에 삼영하드보드공업주식회사에서 근무(1969.9.-1970.8.)하다가, 이직해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디자인개발실에서 1971년 4월까지 근무했다.⁶ 1971년 5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통합광고대행사인 스튜디오 에이스에서 일했다. 회사에 다니며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강사로 출강하다가 1973년 4월, 인덕예술공과전문학교(현 인덕대학교) 상업디자인과 학과장으로 부임해 1974년 8월까지 근무했다. 1974년 2학기에 국민대학교 장식미술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1976년 1학기까지 근무했다. 같은 해 9월에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로 부임했다. 울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한 1981년에 요하네스 잇텐의 『디자인과 형태』를 번역 출간했다. 1987년에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디자인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1989년에 한국도로공사 CI 업무 담당 고문 및 체신부 우표심의위원회에 위촉됐다.

같은 해 한국능률협회 KMA 경영신서 22권 『기업의 이미지 혁명』을 번역 출간했고, 1991년에는 일본능률협회가 출간한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CI 전략 실무』를 공동 번역해 출간했다. 1992년에 대전국제무역박람회(EXPO'93)조직위원회 전문위원에 위촉됐고, 1994년에 대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1996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에 선정됐다. 1999년에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운영위원으로 위촉됐고,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미술감독을 역임했다. 2002년에 울커뮤니케이션을 그만두고, 2007년에 숙명여대에서 정년 퇴임해 명예교수가 됐다. 2015년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2018년에 기업디자인 분야를 개척한 공로로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2.2. 안정연의 디자인 활동

안정연의 디자인 작업은 포스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그래픽 디자인과 아이덴티티 디자인으로 구분된다. 디자인 협회와 상공미전에 출품한 포스터와 동화책 일러스트레이션 및 연하장 디자인 등은 개인 작품이고,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은 대부분 울커뮤니케이션 재직 중에 진행했다. 1969년에 대학을 졸업한 안정연은 프리즘디자인그룹전에 참여해 1971년까지

3 이석우(1928-1987)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1기생(1946)으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며 부산화단을 개척하고 지역 미술계 인재를 양성했다. 대학 동기생으로 서세옥, 박노수 등이 있다.

4 김효(1939년생)는 당시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에 재학 중이었다. 이후 안정연은 김효가 대학 졸업 후 운영한 애드세일 스튜디오에서 김현과 구동조를 만났다.

5 1962년에 휴학하고 부산에 내려가 인테리어 회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고 덕원중학교에서 임시 미술 교사로 1년간 재직했다.

6 정부 기관의 요청에 따른 디자인 개발이 주 업무였다. 『디자인·포장』 표지디자인, 전매청 담배 포장디자인(신탄진, 새마을), 제주도 관광 개발 포스터 및 픽토그램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출품했다.⁷ 한국그래픽 디자인협회(KSGD, KSVD의 전신)가 1972년에 출범하자 창립회원이라 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 회원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이하 상공미전)에도 출품해 1972년에 국회의장상 수상, 1973년에 특선, 그리고 1974년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을 받아 1975년에 추천작가가 됐다. [표 1]

연도	회	제목	비고
1972	7회	굴의 알루미늄 포장 연구	국회의장상
1973	8회	한국 전통 후식과의 상품화 포장 연구	특선
1974	9회	LADON 남성용 인삼화장품 포장계획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
1975	10회	Wonderful Korea	추천작가
1977	12회	자연자원보호 포스터	추천작가
1978	13회	색연필 EAGLE 상품포스터	추천작가
1980	15회	모나미 포스터	추천작가
1981	16회	모나미 포스터 시리즈	추천작가
1982	17회	모나미 포스터 시리즈	추천작가
1987	18회	A Vision of Korea	추천작가

[표 1] 안정언의 상공미전 출품작 및 수상작

안정언은 어문각 그래픽 시리즈 중 『해님 달님』 및 『나뭇군과 선녀』를 출간했고, ‘어문각 일러스트레이션’전(1981.12.2.-12.7., 롯데백화점)에 참여해 원화를 전시했다. 『해님 달님』은 제3회 한국어린이도서상(1982) 일러스트레이션 부문을 수상했고, 국내 아동 그래픽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번역 출간됐다. 1984년에는 서울대공원 공모전에서 마스코트가 당선됐다. 1985년에 일본산업미술가협회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서울일러스트레이터협회 초대전(1985.2.20.-2.25.)에 참여했다. 1987년에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훈민정음>을 디자인했다. 1988년에는 ‘제1회 국제그림동화원화전’(1988.5.4.-5.9., 롯데백화점)에 <이집트 새끼 고양이>를 출품했다. 1989년에 바른손카드에서 주최한 ‘90 카드 작품 초대전’(1989.10.16.-10.22., 뉴코아)에 출품했다. 1990년에 개최된 ‘제2회 국제그림동화원화전’ (1990.5.30.-6.4., 롯데백화점)에도 출품했다. 안정언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작업을 활발히 했는데, 그가 윌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표 2]

3. 안정언과 윌커뮤니케이션

3.1. 윌커뮤니케이션의 창립 배경 및 안정언의 역할

안정언은 제일은행 CI를 계기로 1981년 11월에 윌커뮤니케이션을 창립했다. 그는 이것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제일은행에 부임한 이필승 은행장은 외환은행 전무 시절에 CI 개발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일은행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CI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에는 디자인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프리젠테이션 제도가 없어서 제일은행은 조영제가 이끄는 CDR에 의뢰하려 했으나

7 프리즘디자인그룹은 1965년에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동기생인 김문용, 배천범, 양승춘, 이태영, 정시화 등이 1966년에 결성한 그래픽 디자인 단체다. 1972년에 KSGD가 설립되면서 해체했다

116 | 117

연도	프로젝트명
1982	제일은행 CI
1983	정우에너지(반디가스) CI, 바른손 CI, 체신부 CI
1985	크라온 맥주 CI, 제일제당 유전공학사업부 VI
1986	한국은행 CI, 한국천주교 명동교회 VI, 서울랜드 CI, 국민투자신탁 CI
1987	제일냉동식품 CI, 한국도로공사 CI, 경남은행 CI, 삼패인 그랑주아 BI, 대선주조 CI/BI
1988	예술의전당 CI, 서울신탁은행 CI, 부띠끄 클라라운 BI, 현대 HIPC BI
1989	제일제당 식용유 BI, 부산은행 CI, 창신개발 CI
1990	현대전자 CI, 한국토지공사 CI, 한국능률협회 CI, 대성그룹 CI, 농어촌진흥공사 CI,
1991	에넥스 CI, 창성 CI, 현성리조트 CI, 한국PC통신 CI
1992	새마을금고연합회 CI, 신세계백화점 CI, 철도청 CI, 제주국제컨벤션센터 VI
1993	한국중공업 CI, 경방필백화점 CI
1994	동성종합건설 CI, 포스코개발 CI
1995	인켈 CI, 용평리조트 CI, 포스코 CI, 한국보안공사 캡스 CI, 전남드래곤즈 축구단 BI
1996	코리아 음악방송 CI, 시네플러스 CI, SAY백화점 CI
1997	강원도 CI, 용인시 CI
1998	인천국제공항 CI, 서울대학교병원 BI, 정보나라 VI, 강릉시 CI, 현대금강산관광 CI, 궁중음식연구원 CI, 그랜드백화점 그랜드마트 CI
1999	한빛은행 CI
2000	대구종합경기장 VI, 고창군 CI, 현대여자농구단 VI, 대한주택보증 CI
2001	천주교 광주대교구 VI, 삼청각 문화시설 VI, 월드컴공원 VI, 전주KCC이시스 프로농구단 VI, 한국산업안전공단 CI, 법무부 CI, 이콜라이프 CI, 동부센트레빌 CI, 포스텍 CI
2002	코레일 CI, KT&G CI

[표 2] 윌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1982-2002)

CDR이 그동안 다른 은행 및 여러 기업 CI 디자인을 진행했기에 보다 젊은 감각을 지닌 새로운 디자인팀을 발굴해 차별화하고자 했다. 제일은행 측으로부터 CI 개발 요청을 받은 안정언은 처음에 사양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조영제가 개척한 새로운 디자인 비즈니스 영역에 제자이자 후배인 자신이 뛰어드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제일은행 측의 간곡한 요청과 디자인계 동료들의 격려로 제일은행 CI를 시작했다. 제일은행에서 안정언에게 CI를 의뢰한 것은 상공미전 초대작가인 그가 한국시각디자인협회(KSVD) 회원전에서 회원상을 받는 등 디자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그래픽 디자이너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그가 디자인한 바른손카드 연하장이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 역시 영향을 주었다. 안정언은 현용순, 신수길과 함께 디자인팀⁸을 꾸려 총무로서 제일은행 CI를 시작했고, 이것이 윌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이었다. 윌커뮤니케이션은 초창기 교수-디자이너 연구팀 시기(1981-1993)와 법인 전환 이후 시기(1994-현재)로 구분된다. 이 중 안정언이 CI 프로젝트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시기는 교수-디자이너 연구팀 시기이다. 그의 대표작인 제일은행(1982), 체신부(1983), 명동성당(1986), 예술의전당(1988), 에넥스(1991) 등은 모두 이 시기에 개발되었다.

8 김경환, 황인구 등이 팀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3.2.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의 주요 CI 사례(1982-1993)

안정언이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올커뮤니케이션에서 진행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주요

결과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1980년대 초반에 국내 은행들은 민영화 추진과 함께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대비했는데⁹ 이 무렵 제일은행은 최하위 영업실적, 재정보증업체 도산, 사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고 대외 이미지도 낮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했다.

“제일은행의 심볼 마크는 ‘엄지손’으로 은행 중의 은행을 지향하는 강한 의지와 으뜸을 강조하고 네 개의 손가락은 내적으로는 성장, 안전, 친절, 신속을, 외적으로는 행복, 번영, 성장을 나타냈으며 코퍼레이트 색상은 금적색이고, 마스코트는 꿈과 희망의 상징인 ‘으뜸아기’이며, 슬로건은 ‘으뜸으로 모시는’이다.”¹⁰

안정언은 ‘제일’이라는 상호를 여러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제일’이라는 단어를 강하게 부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으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최고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엄지손가락 이미지로 심볼마크를 개발했다. 더불어 으뜸기업문화운동과 으뜸고객, 으뜸가족, 으뜸종합통장, 으뜸개발신탁 등 으뜸캠페인을 제안해 시각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을 조화시킨 통합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을 시도했다. 과감한 기업 이미지 혁신 결과 제일은행은 CI 도입 후 2년이 채 안 된 1983년 말에 국내 시중 은행 중 수신고 1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공은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의 디자인 역량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1983년에 체신부가 정부 기관 중 처음으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올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한 것도 제일은행 CI의 효과가 컸다. 제일은행이 CI 도입 후 성과가 곧바로 나타난 사례인 반면, 명동성당 VI(1986)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입되는 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명동성당 VI는 시행을 앞두고 교단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완성된 VI 매뉴얼이 배포되지 못하고 참고에 묵혀 있었다. 그러다가 다른 성당이 임의로 개발된 로고 타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VI가 재평가되었고, 뒤늦게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사용하게 됐다. 이후 올커뮤니케이션은 광주대교구 VI(2001)를 개발했고 천주교도인 안정언은 은퇴 후 권선동성당(2007), 대사동성당(2010), 한국가톨릭문화원(2013), 진산성지(2015) 등의 심벌마크를 디자인하는 등 천주교 관련 작업을 이어 나갔다.

1988년에 개발된 예술의전당 CI는 플렉서블 아이덴티티 디자인(Flexible Identity Design) 방식으로 개발되어 발표 당시 획기적인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워드마크 형식의 로고에 사용된 ‘S’자는 서울을 상징하는 동시에 전통무용인 바라춤을 추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리듬감과 율동미를 아름답게 형상화해 국내외 안팎에서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정언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개관(1999) 후 운영위원과 미술감독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 엠블럼(2008)을 디자인했고, 30주년 기념 엠블럼 공모전(2017)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에넥스 CI(1991)는 기업 이미지 개선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9 상업은행(1977)에 이어서 한국외환은행(1979), 국민은행(1981), 한국산업은행(1981), 한일은행(1981), 주택은행(1982), 경기은행(1982) 등이 CI를 개발했다.

10 채수명, 「금융기관 기업이미지 확립전략(CI)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111쪽에서 재인용

연도	주요 프로젝트
1982	
1983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표 3] 안정언과 올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아이덴티티 디자인 결과물(1982-1993)

극적으로 끌어올린 1990년대 한국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1980년대 들어 한샘이 시스템키친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면서 1970년대에 국내 부엌 가구 시장을 선도했던 오리표싱크는¹¹ 점차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에 오리표싱크에서는 올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CI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회사명을 채택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이것은 올커뮤니케이션과 기업문화컨설팅 전문연구소인 올기업문화연구원이 오리표싱크의 기업문화와 대외 이미지를 치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CI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다. 새 회사명인 에넥스(ENEX)는 Excellent, Experience, Expert에서 Ex를 따고 강화한다는 뜻의 접두어 En을 붙인 것으로 초우량, 초경험, 초전문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영문으로 회사명을 정한 것은 시장 개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회사명 교체 결정은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새 CI가 정착되기 전 과도기에 지명도 하락에 따른 최고 20%까지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 CI 도입 후 일 년 만에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² 1995년에는 부엌 가구 부문에서 선두를 지켜온 한샘을 제치고 에넥스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¹³ 이러한 에넥스의 성공은 새 회사명과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시각 이미지, 그리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어우러진 결과였다.¹⁴ 오리표싱크에서 에넥스로의 성공적인 변신은 당시 디자인계뿐만 아니라 경영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대표적인 기업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3.3. 안정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특징

안정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그래픽 감각, 통합적인 아이덴티티 접근 방식, 그리고 포용적 리더십과 협업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안정언은 단순하고 간결한 시각 요소를 통해 명확한 콘셉트를 표현해내는 뛰어난 그래픽 감각을 발휘해 올커뮤니케이션의 초기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성격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그래픽 능력은 젊은 시절부터 높이 평가되었다. 안정언은 상공미전에 출품해 국회의장상(1972)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1974) 등을 수상했다. 그는 또한 협회 회원전에 완성도 높은 포스터를 꾸준히 출품했고, 특히 '한국의 색'을 주제로 한 제9회 KSVD 회원전 출품작은 1981년에 KSVD 회원상을 수상하며, 《월간 디자인》 6월호 표지로도 사용됐다. 이 작품을 활용해 디자인한 바른손카드 연하장¹⁵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11 에넥스의 전신은 초창기 국내 입식 주방 문화 도입을 이끈 오리표싱크였다. 1963년에 창립된 제일도기사가 1976년에 오리표싱크로 이름을 바꾸어 부엌 가구업계 매출 1위를 유지했다. 강영철, 「경영혁신의 귀재 박유재 에넥스 회장」, 《매일경제》, 1996년 9월 9일 자 참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4, 10. 18.)

12 김윤순, 「한국형 시스템부엌에 도전, 오리표싱크 21년만의 변신 에넥스」, 《경향신문》, 1993년 11월 23일 자 참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4, 10. 18.)

13 김명수, 「에넥스 부엌 가구 판매 한샘 제쳤다」, 《매일경제》, 1995년 8월 15일 자 참조,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2024, 10. 18.)

14 에넥스 CI에는 총예산 약 40억 원이 투입됐다. 에넥스는 CI 개발이 완료된 후 바로 공표하지 않고 새 이름에 어울리는 새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6개월간의 시간을 들여 고품격 UV 시리즈를 선보였다. 휴먼키친을 컨셉으로 한 이 제품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연속 주요 언론사 히트상품 리스트에 올랐다. 이후 에넥스는 순이익이 244% 신장했으며, 연평균 매출 성장률도 30%를 기록했다.

15 바른손카드 디자인 작업에는 안정언뿐만 아니라 권명광, 김억, 김현, 유재우, 전갑배, 정연중, 조종현, 현용순 등 9명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안정언은 로열티 계약을 제안했는데 초기 디자인 개발비는 적게 받지만 이후 3,000장 정도인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카드 판매가의 10%를 디자이너가 로열티로 받는 방식이었다.

받아 안정언의 그래픽 디자인을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병행하며 쌓은 부드럽고 섬세한 그의 그래픽 표현 방식은 CI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어 독자적이며 감성적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림 1] 안정언의 KSVD 회원전 포스터(왼쪽), 《월간 디자인》 표지(가운데), 연하장 디자인(오른쪽)

둘째, 안정언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발에서 시각적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와 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CI 작업을 하면서 MI(Mind Identity)와 BI(Behavior Identity) 차원에도 주목해 VI(Visual Identity)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 디자인 프로젝트였던 제일은행 CI에서 이미 시도되었고, 에넥스 CI에서 종합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는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설득을 통해 오리표싱크의 회사명을 에넥스로 변경하도록 이끌었으며, 새 회사명에 맞는 현대적 시각 이미지를 개발하여 고객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는 클라이언트 기업과 확고한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셋째, 안정언의 포용적 리더십과 뛰어난 협업 능력은 올커뮤니케이션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영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신망을 얻었다. 올커뮤니케이션은 올기업문화연구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곳은 1988년에 한국능률협회(KMA)와 올커뮤니케이션 간의 업무 제휴로 만들어진 KMA & ALL Communications CI Bank를 전신으로 하여 1991년에 설립된 기업문화컨설팅 전문연구소였다. 올기업문화연구원은 CI 컨설팅, CI 및 BI 연구개발, 기업 이미지 조사, CI 관련 출판, 그리고 해외의 우수한 CI 이론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안정언은 올커뮤니케이션 창립 멤버인 현용순, 김경환, 황인구 등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공동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김경환이 현재 올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맡고 있다.¹⁶

안정언은 프로젝트 전반을 주도하면서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이를 통해 높은 디자인 수준과 완성도를 유지했다. 제일은행 심볼 마크 디자인은 안정언이 주도했지만 로고타입은 현용순이 디자인했으며, 예술의전당 CI(1988)에서 워드마크를 개발한 것도 현용순이었다. 또한, 체신부 CI(1983) 때는 CDR에서 근무하던 구동조가 합류해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정언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포용적인

16 안정언이 이끌던 교수-디자이너 연구팀 올커뮤니케이션은 1994년에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표이사직은 김병진이 맡았다. 현재(2024년 기준) 창립 멤버인 김경환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리더십을 발휘하며, 올기업문화연구원과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클라이언트 기업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아 CI 개발 완료 이후에도 자문 활동을 지속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올커뮤니케이션의 평판을 높였다.

4. 결론

안정언은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전성기를 맞았던 1980년대에 CI 디자인 전문회사인 올커뮤니케이션을 이끌며 한국 그래픽 디자인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올커뮤니케이션은 교수-디자이너 연구팀으로 출발했으나, 이후 법인으로 전환했다. 안정언은 1981년부터 2002년까지 올커뮤니케이션에서 활동했으며, 초창기 CI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그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에 뛰어들기 전부터 탁월한 그래픽 디자인 감각으로 디자인계의 주목을 받은 안정언은, 대학 시절 은사 조영제가 1970년대에 개척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켰다.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 입학 후 9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안정언은 대학 재학 중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에 다니는 친구들을 따라 여러 대학 강의를 청강하며 특히 경영학 관련 과목을 다수 수강했다. 이 경험과 대학 졸업 후 디자인 실무 현장에서 쌓은 디자인 리서치와 기획 능력은 CI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다. 안정언은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부드러운면서도 확고한 리더십으로 올커뮤니케이션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했으며, 기업 경영 및 기업문화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를 넓혔다. 또한, 클라이언트 기업들과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해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1980년대 말에 그는 《월간 디자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었다.

“우선 어휘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CI를 도입했다.’가 아니라 ‘CI를 시작했다.’가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CI 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해서 CI를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마다 그 기업에 대한 안팎의 이미지를 조사·평가해서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CI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인 코카콜라도 기본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되 시대적 흐름을 예측하며 시각 시스템의 감각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행하고 있고, 역시 다국적 기업인 코닥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형태에 변화를 주어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CI 시스템 운영이란 비단 시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만이 아닌 기업의 이미지에 결부되는 모든 대상, 즉 기업문화, 조직관리, 마케팅 등 경영관리 전반의 문제에 걸친 종합적 운영시스템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¹⁷

안정언은 소수의 교수-디자이너 연구팀이 주도하던 열악한 초창기 국내 아이덴티티 디자인 업계에서 올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해 이끌었다. 그는 확장된 디자인 인식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CI 디자인 전문회사 중심의 본격적인 디자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며 아이덴티티 디자인 분야의 성장을 주도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자적인 기업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믿고,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고유한 CI 세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안정언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활동과 작업은 한국디자인사에서

122123

그 의미를 깊이 고찰할 가치가 있다. 48

참고문헌

- 김종균, (2013), 『한국의 디자인』, 안그래픽스
- 정시화, (1976), 『한국의 현대디자인』, 열화당
- 강현주, (20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시각디자인교육, 1965-1994」. 『조형 아카이브』, 제5호,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김민수, (199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디자인·공예 교육 50년사: 1946-1996」, 『한국 현대 미술교육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46-1996』,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채수명, 「금융기관 기업이미지 확립전략(CI)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1989)
- 김종민, (1989), 「그래픽 디자이너, 안정언」, 《월간 디자인》 11월호
- 장경아, (1992), 「한국적 CI 시스템 정립 모색하는 디자이너 안정언」, 《월간 디자인》 7월호
- 장경아, (1994), 「제일은행과 올커뮤니케이션」, 《월간 디자인》 3월호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2), 『제7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도록』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3), 『제8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도록』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4), 『제9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도록』
- 강영철, (1996.9.9.), 「경영혁신의 귀재 박유재 에넥스 회장」,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김명수, (1995.8.15.), 「에넥스 부엌 가구 판매 한샘 제쳤다」,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김윤순, (1993.11.23.), 「한국형 시스템부엌에 도전, 오리표싱크 21년만의 변신 에넥스」,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최유진, (2021), 「국내 CI/BI 분야의 산증인, 안정언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말하는 디자인 사고」, 《디자인정글》, <https://www.jungle.co.kr>
- 면담 기록: 1차 인터뷰는 2020년 10월 24일(토) 14:30-17:30, 2차 인터뷰는 2020년 11월 14일(토) 13:00-17:00에 이루어짐. 두 차례 모두 용인시 수지의 안정언 자택에서 진행됨. 디자인구술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현주, 김성천, 강승연, 손채영이 참석함.